

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현황과 방침

1.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추진 과정

○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출범 당시부터 산별 노조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드러냈음.

- 민주노총의 강령 제3항은 “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산업별 공동교섭.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통일한다”고 규정하고 규약 제 4조 4호에서도 목적과 사업으로서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확립, 산업별 노조 건설,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통일”을 제시함으로써 산별 노조 건설 지향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음

○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발전전략을 수 차례 방침으로 확정해왔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맹 조직의 자율적 추진에 맡겨진 상황이었음.

- 민주노총은 창립직후인 96년 조직방침으로 98년 산별노조 재편기, 2000년이후에는 산별노조 정착기로 확정한 바 있음.

<표 1> 96년 제출된 민주노총의 조직발전 방향

발전단계	1단계(1996 ~ 1997)	2단계(1998 ~ 2000)	3단계(2000년이 후)
시기	조직정비기	산별노조 재편기	산별노조 정착기
지위	민주노조총연합체	실질적 제1노총	실질적 단일노총
조직구성	산별 연맹, 그룹, 지역본부	산별 연맹, 소산별(지역별) 단일노조, 산별노조	산별노조
조직형태	기업별노조	기업별노조 + 산별노조	산별노조
합법성	미합법	합법	합법
대노총 관계	경쟁	압도	전체노조운동 통일

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96), p. 84.

- 97년 이후 구조조정 시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산별노조 건설이 추진되었으며, 중앙차원에서는 2000년, 2003년 각각 산별노조 건설방침이 제출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유실되었음.

- 2000년에는 산별추진소위가 구성되고,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가 구성되어 산별전략을 제시하였으나 보고서 이상으로 조직적 결의를 얻지 못하였음.

보고서에는 산별 노조 건설에 있어서 원칙으로 ① 노조 가입문화의 완전 개방의 원칙 ② 최대한 조직화의 원칙 ③ 집중성과 전문성의 강화 ④ 민주성과 현장성의 강화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공동투쟁의 기조를 강력히 유지하되, 그와 함께 서둘러 조직재편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기조를 제시하였음.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전략으로는 ① 민주노총 최우선적 조직 강령으로 산별노조 천명 ② 산별노

조 건설 지휘 통합기구를 설치하여 산별노조 조직화의 전체 과정을 조율할 것을 주문하였음.

산별 노조의 구획과 조직 전망에 있어서는 2000년 현재 18개 산업별 연맹을 대산별 분류에 따라 조직 통합과 산별 노조 재편 운동을 통해 10개의 산별 연맹, 산별노조 병존 시대를 거쳐 8개의 대산별 노조, 장기적으로는 서너 개의 대규모 통합 산별 노조 체제로 재편한다는 구상이었음.

<그림2> 산별노조의 구획과 조직 전망

계 산별분류	발전단		연맹, 산별노조	산별노조
		(통합)연맹		
제조업		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금속노조
		화학+ 섬유	화학섬유연맹	화학섬유노조
건설업		건설+ 전일노련	건설산업연맹	건설산업노조
보건/사회복지업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공공사회서비스업		공공연맹	공공연맹	
사업관련서비스업		시설노련	운수연맹	사무금융노조
운수/창고업		택시, 버스, 화물	사무금융노련	
금융/보험업		사무금융노련	전교조+ 대학노조	전교조
교육서비스업		전교조, 전강노 대학노조	언론노조	언론노조
기타		언론연맹	상업관광연맹	상업관광노조
도소매업, 음식업		상업+ 관광		

○ 2003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에서는 조직상태 진단과 사업계획을 2003년의 산별노조 건설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1) 2003년까지 조합원 80% 이상을 산별노조로 전환한다.
- (2) 2003년 임단투에서 모든 산별조직은 집단교섭, 대사용자단체 교섭 등 산별교섭을 추진한다.
- (3) 사용자단체 교섭의무조항 강화 등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한다.
- (4) 경총의 사용자단체 확인을 위한 법적대응 등 대자본 압박투쟁을 강화한다.
- (5) 산별노조의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한다.

- 그러나 이 역시 총력투쟁 과정에서 유실되고 실질적인 힘있는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결국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건설 방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조직내외의 어려운 조건 때문에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음.

2. 민주노총의 산별 추진 현황

1. 산별노조전환의 필요성

○ 2006년은 2007년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라는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전 마지막 해이며,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과 민주노총의 대안적 민주적 노사관계 방침이 충돌하는 시점임.

○ 산별노조 전환없이 기업별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동운동의 계급적 연대 기반은 급속히 와해될 것임. 아울러 사용자의 다양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간 차별로 인해 기업별 노조체계는 더욱 완강하게 어용화, 협조화의 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여기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까지 시행된다면, 노동운동의 위기는 증폭될 수 밖에 없음.

○ 대공장노조의 전투성이 전체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시기는 지나고 전체노조운동의 산별 전환을 통해 질적 전환을 가져와야 할 상황임.

- 고용불안, 구조조정, 세계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비정규직 등 유연화 공세 등에 기업별 노조의 틀로서는 더 이상 질적인 대응을 가져오기 어려운 실정임. 모든 활동가, 간부, 각 정파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루어내야 할 것임.

○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운동은 신자유주의 유연화에 적용할 수 없음.

① 대기업 정규직은 노동3권 향유, 중소기업체 비정규직은 '노동인권 사각지대'

- 정규직 149만명(22.7%), 비정규직 27만명(3.2%)
- '03년 5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128만명 : 사업체소속(1,473만명)의 8.7%
- '03년 중소기업체(1~99인) 취업자 1,152만 명 : 사업체소속 취업자의 78.2%
- '05년 비정규직 840만명 : 전체 노동자 1,497만명의 56.1%

② 낮은 노조 조직률

- '05년 8월 노조 조합원수(조직률) 176만명(11.8%)

③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 확대

- 500인 이상 대비 100인 미만 임금 : '00년 58~71% → '04년 49~64%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 '00년 53.7% → '05년 50.9%

[참고] OECD(2004) :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단체교섭이 전산업 또는 산업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조정이 원활할수록 임금소득 불평등이 낮다.

- 한국의 노조 조직률 OECD 30개국 중 29위, 단체협약 적용률 30위
- 단체교섭은 기업별로 분권화되어 있고, '전국-산업-기업' 간 조정 원활하지 않음.
- 한국보다 조직률이 낮은 프랑스 등 유럽대륙 국가 : 단체협약 적용률 80~90%
cf. 전산업/산업 수준 단체교섭, 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복수노조가 고착화되면 노동운동 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음.
- 가능한 산별연맹은 적어도 2006년 말까지 산별노조로 조직형태 전환을 마무리 짓고 산별교섭 체제로 이행.
- 산별노조 전환 여부에 관계없이 상급단체 및 인근 노조들과 유기적 연대(network, articulation) 강화.

○ 2006년 민주노총은 중앙위에서 확정된 사업방침 속에서 2006년 6월 산별전환투표를 통해 전조직이 산별전환하기로 결의하였음.

2. 산별노조 조직 현황(2006.5 현재)

- 2006년 5월말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가입형태를 살펴보면 총 742개 노조 중에서 산별노조가 32곳, 42만 2천116명으로 전체 노조 수 대비 4.3%이며 전체 조합원수 대비 54.2%를 차지함으로써 민주노총 건설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음.
- 이는 산별노조로 출범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으로 인한 것이며, 민주노총 조직구성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표 4]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동조합 조직현황

<05년 12월말 현재>

소속	노조명	지부(회)수(개)	조합원수(명)	
건설산업연맹(2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레미콘	4	1,200
		덤프연대	17	5,000
	전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	7	1,050	
공공연맹(11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38	4,662	
	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	23	1,995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동조합	21	204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	7	1,547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38	2,482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5	6,270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16	1,034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9	140,000	
교수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	8	1,100	
금속산업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178	41,297	
대학노조	전국대학노동조합	137	8,987	
민주버스노조	민주버스노동조합	29	1,588	
민주택시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	123	6,009	
병원노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31	34,503	
비정규교수노조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4	1,000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노조	4	400	
사무금융연맹(8개)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72	10,700	
	주한외국금융기관노동조합	18	705	
	전국상호저축은행노동조합	18	556	
	전국수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30	876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7	2,376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14	8,549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12	4,861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75	3,470	
언론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110	9,704	
화물통준위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33	3,787	
	전국화물연대	17	18,174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6	90,983	
화학섬유연맹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67	6,177	
직가입노조(1개)	전국선원노동조합	1	870	
총 계	32	1,299	422,116	

-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는 총 32개노조이며 거의 모든 연맹에서 산별 전환을 준비하고 있음.
- 2007년 복수노조 시대에 걸맞는 대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산별특위 구성 결의가 2005년 9월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된 해이기도 함. 특히 금속산업연맹의 경우는 2005년 12월 27일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올 상반기까지 산별 전환을 결의함으로써 향후 산별노조가 민주노총의 주요한 조직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임.

[표 5]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가입형태별 조직현황(06년 05월말 현재)

노조형태	노조수(개)		조합원수(명)		조합원 비율(%)	
	'04.12	'06.05	'04.12	'06.05	'04.12	'06.05
기업별노조	625	621	315,336	345,568	50.9	44.4
산별노조	35	32	293,347	422,116	47.4	54.2
지역노조	84	90	10,521	10,499	1.7	1.3
합 계	744	743	619,204	778,183	100.0	100.0

1. 비율은 조합원수 대비
2. 지역노조는 지역본부를 통해 직가입한 노조임

3. 연맹별 산별 추진 상황보고

① 금속연맹

(2006년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산별 동시전환 총회 진행예정(40여개 이상 사업장 참여))

산별사업 주요 일정 및 계획

- 산별완성 사업계획 확정 : 2005년 12월 27일 (정기대의원대회)
- 미전환 사업장 동시총회 일정 확정 : 2006년 3월 9일 산별완성위원회 전체회의
- 산별노조 완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 3월 초
- 산별완성 동시총회 실시 : 2006년 6월 26 ~ 30일
- 산별완성위원회 2기 사업진행 : 6월 ~ 10월
(16만 산별노조의 규약, 조직체계, 재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사업 진행)
- 16만 산별노조완성 및 연맹 해산 : 2006년 10월

② 공공연맹

* 산별사업 주요일정 및 계획

- o 산별추진위 설치 및 기본계획 확정 : 2월 정기 대의원대회
- o 산별추진위 활동 : 2월 ~ 9월
- o 대정부 기획투쟁 전개 : 6월 ~ 7월
- o 통합연맹 출범 9월 통합연맹 대의원대회
- o 각 노조별 산별전환투표 완료(안) : 11-12월
- o 통합연맹 산별추진위 활동 : 06. 9~ 07년 상반기
- o (가)공공운수산별노조 출범 : 2007년 말 이전

③ 화학섬유연맹

*산별사업 일정 및 계획

- ① 산별노조 완성을 위한 사업방침안 확정(3월)
 - 미전환 사업장 대표자수련회(3/23~24)

- 연맹 임시대의원대회(3/24)
- ② 산별전환 사업 집중과 지역 및 주요사업장 순회토론(4월~5월)
 - 산별완성을 위한 쟁점토론안 마련(4월초)
 - 지역별, 주요사업장별 순회 토론 및 간담회(4월~5월)
(확대간부, 현장조직 토론 및 간담회)
 - 산별전환 세부사업 집중 전개(간부교육 및 소책자 등)
 - 사업장별 산별전환 추진 계획 완료
- ③ 전조직 산별전환 동시 총회 완료(6월) -조직 여건상 8월 이후 하반기 전환 총회 예상
 - 조합원 산별 교육 및 선전사업 집중 실시
 - 미전환사업장 동시 산별전환 총투표 실시
- ④ 화학섬유 산별노조 완성(하반기)
 - 산별노조 조직운영, 교섭, 투쟁, 재정방안 재정비
 - 2007년 투쟁 준비와 제조산별노조 건설 토대 마련

④ 서비스연맹

- 2007년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 예정으로 현재 기획단 회의등을 진행하고 있음. 올 7월 산별 추진위 구성 예정.

- ① 산별노조 건설 일정 및 계획
 - 2월 산별기획단 구성과 공동요구, 공동투쟁 기획(중앙위원회)
 - 3월 산별노조 체계,건설 일정 초안 마련, 산별노조 건설사례 모음
 - 4월 산별노조 건설초안 토론, 간부수련회
 - 5월 산별노조 공청회, 임단투 시기 산별노조 조합원교육
 - 7월 산별노조 건설 준비위 구성
 - 10월 산별노조 건설 간부수련회, 조합원 교육
 - 10월 ~ 11월 임시대의원대회, 산별노조 준비위 총화, 산별전환 결의
 - 11월 ~ 12월 각 노조 조직형태변경 총회
 - 2007년 1월~2월 산별노조 출범

⑤ 사무금융연맹

단계별 산별 사업 진행 예정. 산별학교 진행 등 산별 관련 사업으로 분위기 확산 중

⑥ 병원노련

현재 산재의료관리원을 포함해 7개 미전환 사업장을 중심으로 올 임단협 중 전환사업 추진 예정.

⑦ 운수노조

- 택시, 화물, 버스, 공공연맹 운수분과
- 주요일정 및 계획

- 2003. 12 : 운수연대 출범
- 2005. 3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추진위원회 출범
- ㄱ. 추진위 단계 (06.4-8)
 - . 운수연대->운수산별추진위 전환
 - 운수노동자학교를 통한 산별건설 기본방향과 원칙, 일정에 대한 대중적 확인
 - . 운수산별 실천단 등 대중적 운동전개
 - 운수연대 지역조직 강화
 - 강령/규약/조직편제 및 운영/조직 확대전략 확정
- ㄴ. 준비위단계(06.8-10)
 - 준비위 출범
 - 준비된 조직부터 조건부 조직전환 결의 진행
 - 공투기획단 구성
 - 11월 투쟁 기획 및 준비
- ㄷ. 운수노조 출범-통합연맹 출범
 - 1단계 : 운수노조 창립 : 06.9 (조직결의 가능한 단위 우선)
 - 2단계 : 운수노조 정착 : 06.12 (결의가능한 단위 최대한 결합)
 - 3단계 : 복수노조 대비 조직확대 : 07. 3 (개별가입 추진 등)
 - 4단계 : 미조직비정규 확대 07. 6 (항만/버스/택시 조직확대)
 - 5단계 : (공공-운수) 통합산별 건설

⑧ 건설연맹

- 건설산업연맹은 2004년 11월부터 건설사무노조 및 지역업종노조협의회 등 양 산하 조직으로 개편되어 있음
- 양 산하조직 내에 각각 산별추진위원회와 단일노조 건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 건설산업연맹 전체를 아우르는 건설산별노조 논의는 되고 있지 못함

<건설사무노조 산별추진 현황>

- 건설사무노조는 약 40여개 건설회사 기업노조, 조합원 수 약 8,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건설사무노조는 올 해 1월 건설사무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올 해 9월까지 사무노조 자체 산별노조를 건설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대림건설노조 사태에서 보듯이 어려움에 부딪혀 있음.

<지역업종협의회 전국 단일노조 건설 추진 현황>

- 지역업종노조협의회는 현재 토목건축협의회, 건설플랜트노조협의회, 건설기계(레미콘, 덤프, 타워 등) 분과, (외선)전기원분과 등 4개 업종협의회(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 권역별 지역본부로 수도권지역본부, 대전충청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등 5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 전국 조합원 수는 약 25,000명 정도가 되나 실제 조합비 납부 조합원 수는 약 16,000명이고 이 중 연맹에 의무금을 납부하는 조합원 수는 약 6,000명 정도임.

- 2004년 11월 지역업종협의회 창립 대의원대회에서 2006년 말까지 산별노조 건설을 결의함
- 2005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를 재차 확인함
- 2005년 10월 전국 간부수련회를 통해 단일노조 건설의 의지를 확인함
- 2005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올 해 6월까지 단위노조별 산별노조 건설 의결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일노조 건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올 해 내에 단일노조 건설을 마무리하기로 결의한 바 있음.
- 2006년 2월 대표자회의에서 전국 단일노조 추진위원회를 구성(지역업종협의회 운영위원회)하고 실무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음
- 2006년 4월 전국 간부수련회 열어 각 분과별 의견 수렴을 함
- 2006년 5월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상반기 투쟁과 각 단위별 임단투를 경과하고 난 후 2006년 8월까지 단위노조별 결의를 하기로 하고
- 현재 각 단위 투쟁에 적극 업종과 지역을 뛰어 넘는 연대를 강화하고 투쟁 속에 조직을 건설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교육, 선전 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 2006년 4월 단일노조 건설 조합원용 소책자 15,000부, 간부 토론용 자료, 교육용 프리젠테이션 화일 제작, 배포함
- 단일노조 건설 추진위 및 실무기획팀 차원에서 단일노조의 규약, 재정, 교섭 등과 관련한 구체안을 연구 검토하여 6월까지 안을 마련하기로 함
- 신문, 홈페이지, 포스터 제작 등 등 각종 선전 사업에 단일노조 건설과 관련한 쪽지를 배치, 강화

3. 산별노조 전환 및 하반기 산별추진 방침

○ 2006년 민주노총의 산별조직화의 핵심추진단위로 산별특위를 설치하여 산별노조 전환사업 및 산별연맹 통합재편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음.

○ 산별특위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음.

① 구성 - 각 산별연맹은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맹별 산별특위 위원장 혹은 임원을 5월 중순 까지 구성하고 민주노총 산별특위 구성 완료.(총연맹 산별특위장, 각 산별연맹 특위장, 총연맹 기획팀-조직, 기획,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지난 5월 8일 산별특위 1차 회의를 통해 구성완료함.)

② 역할 - “중앙위 결정” 참고

- 민주노총 산별 전환 계획 및 일정의 확정
- 연맹 주도의 산별 전환 사업의 지원
- 민주적 노사관계법을 쟁점화하고 집중 투쟁 전개 : 산별교섭 법제화
- 복수노조 하에서의 산별 교섭 방안
- 비정규직 및 산별투쟁을 산별건설투쟁과 결합
- 산별노조운동에 대한 평가와 건설 경로에 대한 방침
- 산별구획 확정산별노조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교육·선전·조직 사업
- 미전환 노조 산별전환투표 조직화

- 산별노조건설과 비정규미조직 조직화 사업 등의 사업방침
- 각 조직의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를 권장

- 산별특위는 5월 8일 1차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가맹 연맹별 산별 추진 관련 사업계획 및 활동 내용을 수집하고 단계별 조직지도
 - 복수노조시대 대비 19개 산별연맹의 통합과 단결을 위한 산별노조 구획 Guide Line 제시.
 - 상반기(8월까지) 이내에 복수노조시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전망, 연구사업을 통해, 민주노조 운동의 전반적인 대응방안(초안) 마련.
 - 6월 산별노조 전환사업 이후 임,단협 투쟁 등과 연계하여 사내하청 미조직 노동자의 산별노조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 6월 산별전환사업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13차 중집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결정하였음.
 - 총투표 총회 소집공고 및 현장순회, 대자보포스터 제작 배포, 전국단위노조 현수막 게시, 현장선전 전, 조합원리본달기, 버턴 달기,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 개최 등

- 민주노총으로서는 처음으로 집중점을 마련하고, 총괄적인 산별노조 전환사업을 독려중이며, 이번 산별전환투표의 성공적 마무리야말로 산별노조 전환의 본격적 신호탄이 될 것임

- 산별노조 전환투표 이후의 민주노총 산별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일정과 계획으로 추진될 것임.

<조직사업 흐름>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기간	6월 ~ 8월	9월 ~ 10월	11월 ~ 12월
목 표	산별전환 본격화 및 비정규 기금완료	대산별 추진 및 현장교육체계 전면 재구축	산별전환 완성 및 교육원설립
총연맹 조직방침	-6.19~30 산별전환 총투표 실시 (산별노조 전환율 60% 이상)	-연맹간 통합, 대산별 추진 본격화	-전면 총파업 돌입시, -> 최소 40만명 ~ 최대 전조합원 명 실질적인 총파업 돌입 가능 -연맹간 통합, 대산별 추진기구 구성
	-8월말 비정규 50억기금 모금 완료 및 조직활동가 현장활동 돌입		
	-교육원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현장간부 교육체계 강화	-교육원 설립
	-조직혁신과제(재정, 선거제도) 의결	-조직의 물적토대, 직접민주주의 강화	

(1) 6월말 총연맹 차원의 산별노조 전환 총투표사업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확산하여 연내에 산별전환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산별노조건설및발전특위>를 통해 산별노조체계의 민주노총 조직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① 산별전환 총투표 실시

- 6월 19일~30일 산별전환 총투표 실시(연말까지 산별노조 전환 최종 완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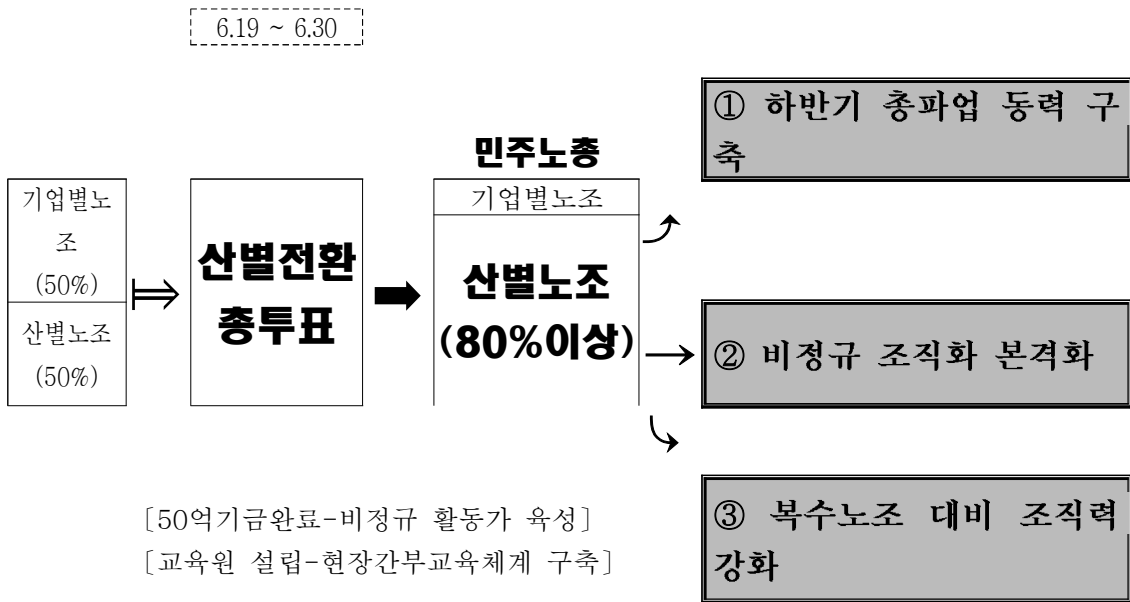
② 산별노조건설 및 발전특위 강화

- 산별노조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사업 추진 : 6월~7월
 - 산별노조 발전을 위한 구획안 마련 : 하반기

③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산별노조 가입운동 지원

- 산별노조 차원의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노조가입 사업계획 수립 지원
 - 각종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 8월~9월
 - 총연맹 차원의 산별노조 가입사업지침 마련 : 10월~12월

<2006년도 산별노조 전환방침과 조직력 강화 흐름>



(2) 하반기에는 전조직적인 복수노조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매뉴얼과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완성한다.

- 복수노조시대 전망 보고서 발간 : 8월말까지
 - 종합매뉴얼 제작 : 9월~12월

